《論壇》

담장과 建築

李康植－(주) 완종합설계·본회 감사

□ 담장을 헐고 나무를 심자

어제까지만 해도 겨울이라고 느껴지던 날씨가 창밖을 보는 순간 문득 봄을 감지하게 한다. 언제나 눈을 뜰지 모를만큼 잠기만 했던 가로수가지에도 푸른 빛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봄을 느끼기에 앞서 寒氣를 느낌은 왤까? 우중충한 담장과 건물을 보며 답답함을 먼저 느끼기 때문이리라. 저 담장을 없애고 그곳에 나무를 심는다면 한결 시원하게 봄을 만끽하리라.

우리 건축인은 환경과 生活樣式을 바꾸어 가며 建築物을 개선하여 왔음을 누구나가 自認하며 긍지를 갖게끔 發展시켰고 많은 사용자가 호응했으며 공업의 均等한 발전으로 調和를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건축은 그 시대 문화의 尺度라고 일컬어 지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면 결코 우리가 자만에만 빠져 있을 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치뤄야 할 國際競技 때 外國人에게 보여주어 부끄럽지 않고 떳떳할 수 있는가를…. 이는 건축물에만 집착하여 주위환경은 생각밖으로 제쳐 놓음으로써 환경이 非人間的으로 放置, 都市의 個體로서 機能과 연관성에 부적당하게 存在되고 있음을 말할 수 있다. 이제와서 급히 푸른 주위환경을 造成하고자 서두르고 있으나 하루아침에 주위환경이 바꿔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일이라고 방관만 할 수 없으며 건축인이 적극 참여하여 기반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담장은 맹수나 또는 外侵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났으나 오늘날에는 침입할 맹수도 없고 아무리 높고 튼튼한 담장이라도 결코 도난을 방지하기에는 그 몫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형태만 볼상사나워지는 모순을 낳고 있으며 환경만 더욱 각박하게 만들어 놓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답답한 담을 허물어버리고 이웃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질 시기가 아닌가 여긴다.

건축인들도 환경을 개선하는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사용자들을 이해시켜 담장을 하지 않고 나무를 심어 더 넓고 쾌적한 空間을 만끽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살기 좋은 社會를 가꾸어 나가는 責任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스스로가 權威를…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좁은 땅을 넓게 이용하려는 지혜로 앞마당은 앞집벽까지, 뒷뜰은 뒷집 마당을 이용해 왔다.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住居空間은 生活의 場所가 아닌 투기대상으로만 여겨 재산으로서의 限界線으로 발전됨으로써 서로가 더욱 좁은 울타리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非人間的인 境界線을 각자가 이해하여 담장을 허물고 이웃간에 친밀할 수 있고 보다 넓은 空間을 서로가 領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좋은 생활환경이 조성되면 건축물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갖게되리라 믿는다.

이는 都市構成의 個體로서 기능을 백분발휘하여 아름다운 도시 조성은 물론 우리의 건축을 자랑할 수 있는 의연한 권위를 갖게될 것이다. 비단 개인으로서의 권위 뿐 아니라 건축인의 권위와 나아가 나라의 권위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인과 使用者의 이해와 노력이 따라야 가능하며 협조와 노력이 없으면 한낱 卓上空論에 불과하다. 오직 꾸준한 노력으로 아름다운 韓國을 보여주자.

□ 건축사의 權威

앞서의 例와 같이 目的意識을 갖고 서로가 協力하고 존중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권위를 갖게 되는 것과 같이 개인의 권위를 부르짖어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권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믿는다.

우리 건축사 스스로가 담을 쌓고 단절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의 담장을 헐어버리고 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헐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또는 外的인 힘에 의해 헐려지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가 과감하게 헐어야 헐려질 것이다.

각각의 건축물이 우리 건축물을 대표하는 것과 같이 건축사 개개인이 건축사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건축사의 풍토는 보다 밝아질 것이며 서로가 믿는 사회, 스스로 권위가 세워지는 환경이 될 것으로 여긴다.

마음의 담장을 헐고 협력의 나무를 심어 권위라는 결실을 맺도록 각자가 힘써야 할 것이다. 한번 죽어가는 나무는 소생시키기가 어렵고 다시 씨앗을 뿌려 결실을 얻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게 마련이다.

각자가 권위의식을 가지고 닥아오는 國際大會는 물론 후세에도 부끄럼없는 건축문화를 가꾸도록 노력하는 확고한 哲學을 갖자. 〈*〉